

장세일 영광군수, 군민과의 대화로 소통 행정 강화

10일 부터 10개 읍면 순회 일정 2024년 군정 주요 성과 건의사항 풍력발전기 활용 관광활성화 제안 일상생활 밀접 애로사항 답변 등

영광군이 군민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12일 영광군에 따르면 장세일 군수가 군민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민선 8기 2025년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이번 대화는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2024년 군정 주요성과와 2025년 군정 비전을 비롯해 새롭게 도입한 읍면 발전토의와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10일 첫 방문지인 백수읍과 염산면에서는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백수읍에선 '풍력발전기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 염산면에선 '재해예방 및 지역발전을 위한 안강제 정비'를 주제로 주민들과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이밖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즉석에서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대화는 △11일 묘량·불갑면 △12일 흥농읍·법성면 △13일 군남·군서면 △14일 영광읍·대마면 순으로 진행되며 도서 지역인 낙월면은 별도 일정을 잡아 추진할 계획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2025년에도 군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군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친절행정을 실천하겠다"며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가까이 듣고 이를 군정에 반영해 군민 모두가 체감



영광군이 지난 10일 군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를 시행했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

농촌관광 서포터즈 체험활동 운영 전남농협, 농업 가치 체험 제공



농협전남본부는 전남팜스테이마을협의회와 함께 광주·전남 도시지역 어린이 10가족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농촌관광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포스터) 농촌관광 서포터즈는 도시지역 어린이들에게 농업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모집됐다. 전남농협 농촌관광 서포터즈 1기는 6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서포터즈 참여가족은 전남 24개 팜스테이마을에서 숙박을 하며 모내기 체험, 쌀요리 만들기, 딸기 수확 체험 등 어린이들이 평소 경험하지 못하는 농촌 체험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체험활동 간 경험을 사진과 함께 블로그와 SNS에 등재해 농촌 체험에 관심 있는 도시지역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이광일 농협전남본부 본부장은 "농촌관광 서포터즈가 농업·농촌을 이해하고 농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며 "전남농협은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정광선 담양군부군수, 지방부이사관 승진 첫 3급 부단체장



정광선(사진) 부군수가 담양군에서 처음으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12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승진은 지난해 정부가 인구 5만명 미만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부이사관(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발표에 따른 것이다.

정 부군수는 나주시 출신으로 1991년 나주에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전남도에서 자치행정과, 자치분권과, 국제협력관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다. 2021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해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기후생태과장과 인구청년정책관,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1월2일 담양군 부군수로 취임했다.

정 부군수는 전남 이병노 담양군수로 부터 임용장을 받고 지역 첫 3급 부군수로 일정을 시작했다.

정 부군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군민과 공직자분께 감사하다"며 "더 막중한 책무가 부여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담양군정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월야면 정월대보름 행사 성료 함평군, 지신밟기 등 세시풍속 재현

함평군이 한 해의 풍년과 만대번영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재현행사를 개최했다.

12일 함평군은 제18회 정월 대보름맞이 전통세시풍속 재현행사가 지난 11일 월야면 달맞이공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상익 함평군수와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 오민수 함평군보영회 회장을 비롯해 군민과 관광객 등 500여 명이 참여해 함평군과 이웃의 한해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다.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재현행사는 월야면 번영회가 주관했으며 전통문화를 계승·보전하고 군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운을 쫓고 풍년을 기원하는 월야농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대동놀이, 지신밟기, 풍년기원제, 달집태우기, 오곡밥 나눠 먹기 등의 순서로 다채로운 세시풍속 행사와 함께 진행됐으며 참여자와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참여자들은 지신밟기를 하며 한 해 평안을 빌고 달집을 태우며 역운을 몰아내고 소망을 빌었다. 함께 오곡밥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고 덕담을 주고받으며 이웃 간의 돈독한 정도 나눴다.

장수복 월야면 번영회장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민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매년 정월대보름 하루 전에 월야면에서 세시풍속 재현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며 "한 해 역운을 몰아내는 보름달의 밝은 기운을 받아 모두가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전통문화가 잊히지 않도록 매년 행사를 개최해 주시는 월야면 번영회에 감사드립니다"며 "함평군이 행복한 도시로 대도약하는 한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화순군 어르신들이 세무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7일 나드리노인복지관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합세무 상담실'을 운영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

화순군은 최근 나드리노인복지관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마을세무사와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담당자가 합동으로 '찾아가는 통합세무상담실'을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된 '찾아가는 통합세무상담실'은 주민들이 평소 갖고 있었던 세금 고

민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상담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떤 방법이 나을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으며 상담을 진행한 이세형 마을세무사는 각 어르신의 형편에 맞춘 친절 상담은 물론 세금 절세 방법 등을 안내해 호응을 얻었다. 구현진 화순군 재무과장은 "올해에는

더 많은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봄꽃 축제 행사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찾아가는 통합세무상담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위해 주변에도 널리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마을세무사 3명을 읍면별 담당 마을세무사로 지정하고 군민이 원하는 장소에서 국제 전문 상담뿐만 아니라 지방세 불복 청구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순=김선중 기자

영광군, 응급환자 앰블런스 이송경비 지원

전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영광군은 안정적인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거리, 소득과 관계없이 군민(응급환자)을 대상으로 응급차량 이송 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12일 밝혔다.

응급환자 앰블런스 이송경비 지원사업은 군민의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해 지난 2023년 3월부터 시행해 현재 290여명에게 이송 경비를 지원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전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군 고향사랑 지정 기부사

업으로 선정돼 인구 고령화 및 응급의료 복지향상의 기여한 우수시책으로도 인정받았다. 신청방법은 환자나 보호자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 타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제외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응급차량 이송 경비 지원은 적은 예산으로 군민의 만족도가 큰 우수사업으로,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다"며 "응급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신속한 병원 간 이송으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하는 영광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

